

2021 년 11 월 28 일 “대강절(1) 그가 누구이기에” (막 4:35-41)

예수님은 인간의 죄와 고통의 피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따라서 극복할 수 있는 최상의 해결책을 주십니다. 성경 속에서 이 예수님을 만나면,

첫째 '하나님은 사람과 세상에 저런 마음을 갖고 대하신다'

둘째 '사람은 저런 마음과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구나'를 알게 됩니다.

[1] 풍랑 속 예수님

가르치시는 일을 다하시고(막 4:1 이하) 갈릴리 바다를 제자들과 배를 타고 건너 가실 때 광풍이 불어 파도가 넘칠 때 제자들이 왜 우리를 돌보지 않냐며 불평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잠잠하라고 하여 잔잔해(평온해) 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하며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며 예수님 안에서 경이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은 이럴 때 사건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시고 사람을 대하시는 지를 보는 것이 중요한 본문 이해의 키입니다.

먼저, 광풍과 바다에게 말씀하여 자연의 격동을 제어하십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혼돈과 어둠과 공허 속에서 창조하셨습니다(창 1:2). 창조의 결과 혼돈은 질서와 조화로(살름), 어둠은 빛으로, 공허는 선한 것(긍정의 것)들로 채워졌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소용돌이 치는 혼돈의 바다 한 가운데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바다) 위에 운행하시는 모습과 중첩됩니다(창 1:2) 바다는 종종 상징적으로 혼돈과 무질서를 뜻합니다. 창조 때에 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 갈릴리의 거친 바다 위에 계십니다.

두번째로, 주님은 또 하나의 격동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맹렬한 바람과 파도를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잠잠케 해주시려고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39 절). 이에 제자들은 이분은 누구이신 지를 묻게 되었습니다.

보기는 보는데 알지 못하는 인간의 딜레마가 있습니다(4:12). 지금까지 주님을 보아 온 제자들이 새삼 주님께 대해 묻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본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은 창조 때처럼, 혼돈과 무질서의 바람과 파도를 질서와 평화로 반전시키시는 창조주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2] 믿음이 없느냐.

창조주를 믿는 믿음은 무질서와 혼돈을 질서와 조화로 바꾸시고, 인생의 어둠 속에 빛을, 공허 속에 선한 것, 긍정의 것으로 새롭게 채우시는 것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인생과 역사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는 이 분과 함께 영광스러운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믿음의 내용을 삶에서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창조주 예수님은 끝까지 자비를 베푸시며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깊은 연민과 안타까운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길 위에 함께 걸으시며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믿음으로 함께 기뻐하며 따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생각해봅시다>

1. 본문을 통해 발견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2. 나와 가정과 공동체의 여정에서 창조주로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지금 어떤 면에서 창조주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